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이란 관계 회고와 발전 방향 연구

신경환\*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이후<br>중국-이란 전략적 관계 변화 |
| II. 초기 중국-이란 관계의 형성 과정              | V. 결론                                  |
| III. 90년대 이후 중국-이란 관계 변<br>화의 주요 사건 |  |

## | 논문요약 |

중국의 부상은 기존 국제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 세력의 부상이 곧바로 세력균형의 붕괴로 인식되는 전통적 시각이 공감되지는 않는다. 현대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냉전체제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세력의 부상이 어떻게 수용될 것이냐이다. 중동지역은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확립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중동의 정세 변화가 미래 국제체계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미국의 패권질서의 일부와 충돌 혹은 교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며 중국과 일찍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한 이란을 중심으로 중국의 중동전략을 분석한다.

▪ 주제어: 중국의 중동전략, 미국패권, 석유전략, 중국 부상, 중국-이란 관계

\*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조교수.

## I. 서론

중동은 현대 국제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전후 국제체제 형성에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었고 그 여파가 현대 국제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가 산업화에 집중하면서 중동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이 상충되는 교차점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중동은 동북아시아에 자리 잡은 동아시아국가들에게는 그 지리적인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의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중동에서 작은 불씨도 용납하지 않아 폭풍전야와 같은 안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 중동의 문제는 냉전의 종식 이후 더욱 복잡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동국가들 스스로가 보다 독립적인 자아인식을 향상해 가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IS와 같은 중동발 테러리즘의 확산 또한 냉전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으로 파생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큰 방향성을 고민한다면 무엇보다 전후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냉전시기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회주의권 내에서도 고립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시 중국은 전방위적인 외교적 접근을 통해 고립을 탈피하고자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동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형국에 빠졌다. 당시에 중국은 1992년 한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서구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가진 한국과의 수교가 천안문사태 이후 서구사회의 외교적 압박을 희석시키는 효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의 외교는 중국이 처한 상황을 전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매우 이례적인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냉전시기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외교적 교류가 가능한 대상을 물색하였지만 마땅한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열강의 세력 교차점으로 정치외교적 민감성이 높았다. 후에 중국과 이란이 전략적인 관계

를 수립한 배경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란이 중동사회에서 처한 외교적 고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국 중국과 이란은 각각 다른 위치에서 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현재 중동의 정세변화에 가장 큰 요인은 냉전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가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동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은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피로감을 확대시켰고 미국의 절대적 패권영향력 약화는 중동에서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미국의 IS에 대한 강경한 정책은 민족의식과 종교적 연대가 강한 중동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높여 오히려 중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다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국제환경에서 더 이상 중동에서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급과 외교적으로 취약한 중동지역에 대한 교두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중동외교를 확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향후 중동에서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이란의 초기 관계를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중동문제를 특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와 종교 등의 문제와는 별개로 중국과 이란 관계가 형성되었던 초기 관계와 중국의 부상 이후 보다 전략적 이익이 포함된 90년대 이후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과 중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명실공히 G2국가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은 중동에서 미국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되 배타적인 패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의 중동정책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이 향후 국제체제 내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중국의 산업 확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동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익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영향력이 제한적인 중동국가 중 이란은 가장 중심적인 국가이고 향후 중동이 보다 자주적으로 발전할 경우 이란은 중동에서 지역적 영향력을 빠르

게 확대할 것이다. 미국의 세계패권질서 안에서 중국과 이란 관계의 발전 방향은 향후 국제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의 에너지 수요증가는 세계적인 자원경쟁을 촉발하였고 원유가격 급등을 초래하였다.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국 내 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셰일가스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동의 중요성이 다소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물론 정치외교적인 중동의 중요성, 즉 화약고로 대변되는 중동의 민감성은 유지되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다소 약화되었다. 즉, 미국이 기존 중동에 대해 완고한 배타적 영향력을 유지한 것에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한 교훈과 냉전시기 불안요소의 원천적인 차단을 목표로 했다. 물론 중동 자체에 대해 가지는 미국의 국익이 미국의 중동전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변화가 있는 만큼 중국의 중동에 대한 접근시도에 미국의 대응에 기존과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할 수 있다면 보다 거시적인 미국의 국제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신형 대국관계’를 제시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중국의 국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향후 국제체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중동전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사실상 중국의 중동정책이 아직 명확한 구조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논문의 형태로 발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중국 내에서도 많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인 중국과 중동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중국이 중동에 대해 가지는 이익과 접근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중국의 중동지역 연구는 냉전시기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 제3세계 외교 전략이 수립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가장 초기의 연구기관으로는 1961년 7월 4일 설립된 중국사회과학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西亞非洲研究所)이다. 이곳은 처음에는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亞非研究所)로 시작하였는데, 이후 중동을 염두에 두고 보

다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부터는 중동연구에서도 이란연구 분야가 전문화되고 있다. 이 분야 역시 대학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로 서북대학, 운남대학, 상해외국어대학, 서남대학 등이 이란연구 중심을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이란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북경대학 외국어학원에서는 이란문화연구소 등을 별도로 설립해 놓고 있다.

이란의 역사와 사회분야 연구자로는 왕싱윈(王興運), 리티에장(李鐵匠), 쉬량리(徐良利), 핑수즈(彭樹智), 자오웨이밍(趙偉明), 지카이윈(冀開運), 린 환핑(蔭煥萍) 등이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의 루진(陸瑾) 박사의 이란어판 『마테오리치의 1) 중국기(中國記) 이란어판 연구』는 2009년 9월 이란에서 국가급 도서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리춘팡(李春放), 판홍따(范鴻達), 양싱리(楊興禮), 천안첸(陳安全) 등의 학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중국의 중동연구는 대학부설의 연구기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으로는 상해외국어대학 중동연구소(上海外國語大學中東研究所),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운남대학 국제관계학원(雲南大學國際關係學院), 서남대학 서아시아연구소(西南大學西亞研究所), 샤먼대학 공공사무학원(廈門大學公共事務學院), 내몽고민족대학 세계사연구소(內蒙古民族大學世界史研究所), 닝샤대학 회족연구소(寧夏大學回族研究所), 하남사범대학 공공사무학원(河南師範大學公共事務學院), 외교학원 국제문제연구소(外交學院國際關係研究所), 국방대학(國防大學) 등이 있다. 독립연구기관으로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世界歷史研究所), 상해국제문제연구원(上海國際問題研究院),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유럽아시아사회발전연구소(國務院發展研究中心歐亞社會發展研究所), 상해사회과학원 동유럽중동연구소(上海社會科學院東歐中西亞研究所), 유럽아시아연구소(歐亞研究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西亞非洲研究所), 중국국제문제연구소(中國國際問題研究所),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중심(新華社世界問題研究中心),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國國際問題研究院), 중국당대세계연구중심(中國當代世界研究中心) 등이 있다.

1) 이탈리아 선교사.

2000년대 이후 중국 정치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2000년 이후 보다 자유로워진 중국의 학술환경과도 큰 관계가 있다. 중국 정부는 학술 분야에 지원금 비중을 높이고 보다 공개적으로 외교정책을 논의함으로써 학자들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존 연구들은 90년대부터 제기되어 온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체제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집중하고 기존 중동의 특성을 배경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에너지 수급안정의 목표를 주요한 요소로 봤다. 최재훈(2011, 197-217)은 중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수급과 시장 확보 차원에서 중동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여 중국의 중동에 대한 접근을 분석하였다. 특히 중동이 가지는 정치외교적 민감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중국과 중동연구에서 보다 세분화를 시도하여 중동국가 중에서 이란을 특정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체제가 냉전 이후 또다시 다극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제질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향후 중국의 중동전략, 특히 이란에 대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국제전략의 실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의도하는 중국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초기 중국-이란 관계의 형성 과정

중국은 중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지만 쉽게 근접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전략적 교류가 가능한 외교상대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지역적 민감성이 중국이 중동에 접근하는 행위 자체를 억제했다. 중국과 이란이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소 우연한 일련의 사건들이 연결된다.

중국은 달라이라마의 인도 망명 이후 국경문제를 비롯한 외교문제로 중국-인도 관계의 악화를 막을 수 없었다. 중국은 적의 적은 친구라는 속담

과 같이 인도와 적대적 상황에 있는 파키스탄과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했는데 이후 파키스탄을 통해 중동국가인 이란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란은 왕정을 붕괴시키는 혁명 이후 중동이 미국의 비호를 받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으로 운행되는 것에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했다. 왕정 중심의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왕정을 붕괴시킨 이란의 혁명은 중동지역 내에서 이란을 고립시켰고 이란 또한 외교적 고립을 돌파할 새로운 외교 대상을 필요로 했다.

### 1. 중국의 이란에 대한 인식

고대 중국과 이란은 동양과 서양의 기준이 되었고 당시 문명교류의 유일한 수단인 실크로드의 시작과 끝에 각기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중국은 국제화에 실패하였으며 주요열강들이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할 때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이는 중국과 중동의 일시적인 단절을 의미했다. 그러나 과거 중국과 중동의 오랜 관계는 짧은 단절의 시간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서정적인 이름과 달리 매우 험난한 여정을 의미했던 실크로드는 동서양의 유일한 소통의 수단이었다.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된 문명은 매우 최상위의 고급제품들이었고 서로 상대에 대한 환상을 높여갈 수 있었다.

특히 이란은 이러한 중동의 범위에서 보다 중국에 가깝게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국가이다. 또한 중국과의 역사적 연계성도 높다. 이런 중국에게 세계의 양대 문명으로서 메소포타미아문명의 이란은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중국과 이란이 위치한 지리적인 거리만큼 이들 두 국가는 관심의 대상일 뿐 연구의 대상으로 부각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각기 자신들의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중국과 이란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경계하는 관계에 있었다.

중국에서 이란에 대한 기록은 서한(西漢)시대부터<sup>2)</sup> 찾아볼 수 있지만 중국과 이란의 오랜 교류의 역사와는 다르게 중국의 이란연구는 최근에

2) 사마천의 『사기(史記)』.

이르러서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문학, 문화, 종교 등에 국한되었던 초기 이란연구는 90년대 이후 정치와 경제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외교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외부에 싱크탱크와 같은 연구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외교는 중국공산당의 관련 부서와 인민해방군 내의 관련조직이 담당했다. 중국의 안보와 관련된 대만과 홍콩 등 주변 외교는 군부의 발언권이 크게 작용하고 그 외의 일반 정치외교문제는 당이 담당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학 등 학술기관에 국제관계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변화이다.

## 2. 이란의 중국 인식

현재 중동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친미국가로 미국의 중동외교에서 핵심적인 이익이 있는 곳이다. 반면 이란은 호메이니의 1978년 혁명 이후 반서구화운동을 펼쳤고 중동에서 반미 진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이들 두 이슬람 국가는 각기 수니파와 시아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종파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란은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함께 중동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는 그 기원을 2500년에서 3000년까지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실크로드로 상징되는 두 문화권의 교류는 전근대 시기 유일한 동서양의 교류 방식이었고 서로의 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다.

중국과 이란의 오랜 기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아이러니하게도 5,000km에 달하는 물리적 거리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리적인 간격은 전통적인 두 강대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상황을 배제시켰고 대규모(물량)의 교류가 아닌 최상위 문화(최고급 비단 및 도자기)의 제한적 교류는 서로 상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랍지역의 역사적 패권국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이란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패권국인 중국과는 분명 같은 공간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리적인 구역 구분이 역사적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이 발생한 탈라스전투(751년)에서 당나라는 아바스 왕조에게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양보해야 했다. 이후 중국은 서역에 대한 직접통치를 도모하지 않고 방어에 주력하였으며 이슬람세력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 영역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시도하지 않아 현대까지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과 아랍패권의 충돌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두 지역의 안정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크로드와 같이 공동의 이익에 대한 공감기가 있었다는 점은 당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근대로 접어들어 두 국가는 서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고통스럽게 현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각기 자신들의 세계에서 문화적 우월성을 의심하지 않던 중국과 이란은 서구열강의 확장에 무력하게 유린당했다. 중국과 이란은 20세기 초 자체적인 근대화 실패한 트라우마를 공유한다. 따라서 중국과 이란은 시대에 따른 변화의 당위성은 인식하면서 현대화는 곧 서구화라는 기존의 근대화 방식에는 큰 거부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서구열강에 의해 강제로 단절된 중국과 이란의 오랜 우호적 교류를 복구한다는 것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는 상징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이란 관계에서 이러한 역사의 공통인식과 공간적 거리는 두 국가의 국제적 협력의 전제가 되고 있다. 또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두 국가는 기존의 서구중심의 국제체제가 아닌 제3의 길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란은 국가적 손실을 감수하며 오랜 기간 서구사회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중동 내에서의 입지는 확대되지 못했다. 더욱이 911 사태 이후 미국이 아프간전쟁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이란은 중동 내에서마저 입지가 더욱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미국이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전쟁을 통해 중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불만이 높아졌고 이라크와 아프간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동 내에서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란은 중동이 보다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동 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란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확대 발전한다는 사실은 중동 내에서 이란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이다.

### 3. 중국-이란의 상호 전략적 이익 추구 배경

#### 1) 이란의 중동지역 주도권 추구

이란은 서구에 대해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현대화를 모색한 팔레비 왕조를 혁명을 통해 전복시켜 보다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반서구국가로 변모했다. 2002년 1월 이란은 북한과 함께 미국 부시 행정부로부터 ‘악의 축’ 국가로 지목되어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반면 중국은 7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국제체제를 수용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단일시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은 냉전체제 와해 이후 가장 빠르게 현 국제체제에서 성공적인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란은 여전히 서구와 적대적인 위치에서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중동지역에서 제3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의 시아파로 이루어진 종교적인 단결력은 미국의 중동지배력이 약화될 경우 이란이 중동세력의 규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란은 20세기 초까지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소련의 적극적인 확장전략의 요충지에 놓여 있었다. 아랍지역의 중심 국가임을 자부하는 이란은 더 이상 서구의 간섭 없이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복원해야 했다. 이란의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영국으로부터 물려받은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완전히 미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갈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보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어떻게든 세력 균형을 통해 이란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선호

했고 이러한 이란의 전략 설정에 가장 부합하는 세력으로 중국이 가진 조건이 점차 두드러졌다.

## 2) 중국과 이란의 반제국주의 연대

중국과 이란의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이란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두 국가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서구열강 중심의 국제체제와는 다른 이상적인 국제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물론 이는 현실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적어도 이들 두 나라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중국과 같이 현대사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란은 미래의 발전은 곧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페르시아가 전 중동지역과 페르시아만을 지배하던 역사가 궁극적인 이란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서구세력의 영향력을 배척하고 이란이 중심적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거시적인 구상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상당부분 비교될 수 있다.

이란은 1970년대까지 여전히 왕정국가였기 때문에 이때까지 민중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가 된 중국과의 연합은 큰 정치적 부담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반제국주의원칙은 이란과 일치했고 비슷한 역사적 고민과 인식은 연대의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중국은 제3세계를 연합하고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원론적으로 엄중하게 내정불간섭원칙을 자신들의 외교정책에서 강조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교원칙은 오직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만을 가지고 아랍에서 찬란한 페르시아제국을 재현해야 하는 이란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다.

특히 1972년까지 오만과 그 밖의 페르시아만의 왕정에 반대하는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던 중국은 1973년 6월 지펑페이(姬鵬飛) 외교부장이 이란을 방문한 자리에서 더 이상 중국이 페르시아만에서 반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세의 간섭 없이 이란이 페르시아만에서 중심국가의 위치를 되찾으려는 이란으로서는 중국의 이러한 전향적 자세는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다(존 가버 2012, 92).

### 3) 중국과 이란의 외교적 우세의 활용과 내부적 열세 보완으로서의 상호 교류

이란이 가진 전략자본은 석유를 제외하면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갈망하는 소련에게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소련의 확장을 차단하려 하는 미국에게도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었다(최영철 2013, 42). 소련은 1972년 이란과 경쟁관계에 있는 이라크와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이라크에 풍부하게 매장된 유전개발에 자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소련과 이라크의 연합은 이란이 가진 전략자본의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대로 소련과 이라크의 협력은 미국과 이란의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과의 연합을 이란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략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란은 중국이 과거 종교적인 문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되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파키스탄을 도와 1965년 인도-파키스탄전쟁을 파키스탄에게 유리하게 발전시킨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존 가버 2012, 65). 특히 이란에게 있어서 파키스탄은 같은 아랍문화권이라는 동질성뿐만 아니라 친소적인 인도와의 직접 접촉을 막아주는 중간지대의 역할을 했다. 1971년 파키스탄이 인도에 패해 세력균형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은 파키스탄의 군사력 재건에 협조했고, 특히 놀랍게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움직임은 이란에게 중국은 소련의 남진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세력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줬다.

중국에게 있어서 서부 국경지역의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이익이다. 특히 현재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서남부지역의 티베트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분쟁을 비롯해 달라이라마가 1959년 3월 인도로 망명하면서 인도와의 심화되는 대결구도를 피할 수 없었다(이규태·구광범 2011, 161).

특히 인도가 소련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파키스탄과의 연합을 통해 인도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펼쳤다. 파키스탄은 이란에게 있어서도 완충지대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이란은 안보 분야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이익의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파키스탄도 당시의 중국과 이란의 파키스탄에 대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중국과 이란은 1971년 파키스탄 주재 이란대사와 중국대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협정에 서명했다(존 가버 2012, 88). 파키스탄은 중국과 이란을 각각 동쪽과 서쪽에 놓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을 했다.

#### 4) 미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과 이란 관계의 외교적 활용성 확대

1970년대 들어 미국의 헨리키신저에 의한 미중화해<sup>3)</sup>가 성사되어 중국이 성공적으로 소련을 견제하면서 이란은 자신들의 전략적 세력균형 구상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미중화해는 중국과 연합하면서 미국과도 전략적 협력이 필요했던 이란이 미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안심을 하게 되었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직접적으로 군사개입하면서 이란의 지도부는 이란의 대 중국 외교의 전략적 입장은 옳았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란혁명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란의 외교 전략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란과 중국의 관계 발전은 곧바로 미국의 우려를 증가시켰고 특히 중국과 이란의 핵기술과 군사기술 교류 등은 미국이 중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란과의 관계 발전이 외교적으로 매우 유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졌지만 미국과의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유지해야 할 만큼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이란의 협력관계는 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찾아보기 힘들다.

3) 1971년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미국의 닉슨 행정부와 중국의 외교적 데탕트를 성공시킨 사건으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 III. 90년대 이후 중국-이란 관계 변화의 주요 사건

#### 1. 1989년 천안문사태

중국은 1989년 발생한 천안문사태로 인해 개혁개방 이후 서구사회에서 쌓아 온 신뢰가 붕괴됐다. 미국과 서구사회는 천안문에서의 탱크를 동원한 강경진압에 경악했다. 과거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의 최종 붕괴를 목표로 설정했던 것처럼 서구사회는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처럼 보였다. 물론 당시 부시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공존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하는 전략목표가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중국의 올림픽 개최를 2000년대 초까지 반대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은 견지했다. 사실 중국이 천안문사태에 탱크를 시위진압 도구로 동원한 것은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시위진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분명 의도적으로 탱크를 동원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다시 과거 문화혁명과 같은 혼란으로 빠지는 것에 대한 강한 공포감이 무리하고 성급한 결정들을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립이라는 오래전 외교적 난관을 다시 한 번 오래전 전략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바로 다시 제3세계 외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성공적인 수출 확대를 통해 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제3세계 외교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1992년 이루어진 한중수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되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감안하고서라도 친서방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천안문사태 이후 서구사회에서 악화된 중국의 이미지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제3세계 외교 재가동 과정에서 이란은 다시 한 번 중국 외교전략의 중요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이란은 당시 미국과 극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다. 오랜 우호국가인 북한과의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서구사회에 중국의 이미지를 제

고시키고자 했던 중국이 서구사회와 대립적인 이란과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당시의 정책기조에서는 모순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란은 중국이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수세에 있는 상황에서는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내부적으로는 개혁방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물론 남순강화(南巡講話)<sup>4)</sup>를 통해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서방과의 대립을 회피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은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1992년 소련해체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중국을 보다 긴장시켰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천안문사태로 실추된 중국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전략을 펼쳐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중국을 소련과 같이 중국적인 파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했다.

특히 천안문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중국 강경파의 프로파간다를 반서구연대를 기대하는 이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따라서 이란은 중국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중국은 보다 전략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대외정책을 수립해 갔다. 즉, 중국은 한편으로는 중국이 평화적이고 기존 국제질서에 동조하는 선량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전복시키려 한다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과시해야 했다.

1990년대 초 중국의 이란 정책은 확정된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에 있었다. 서구사회로 접근하기 위해 이란과 거리를 두어야 했던 반면 미국의 위협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전략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했다.

## 2. 1991년 이라크전쟁

이란은 중국으로서는 중동의 유일한 외교적 교두보로 역할을 하고 있었

4) 1992년 1월에서 2월까지 중국의 덩소평주석이 천안문사태 이후 지도부 내부의 보수적 시각을 타파하고자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중국의 남부 연안도시를 순방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정치 이벤트를 말한다.

고 오랜 외교적 자본을 투자하여 전략적 관계를 수립한 상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의 이란에 대한 설정은 얼마 안 가 실질적인 전략으로 나타났다.

1991년 발발한 이라크전쟁은 중국과 이란의 원론적인 입장연대를 강화시켰다. 이란과 중국은 한 목소리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가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강대국의 개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결국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외부의 간섭, 특히 제3자인 강대국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중국과 이란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외교적 연대는 중동국가들에게 이란과 중국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등 서구국가들이 미국에 반대를 표명하여 미국에 반대하는 중국과 서구유럽의 강대국이 함께하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김송죽·최유나 2014, 237). 이러한 변화는 중동국가들이 중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란은 중동지역 내 긴장상황이 이란의 전략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리한 희망에 가깝지만 강대국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중동지역에서 이라크전쟁은 강대국들이 힘의 균형을 맞춰 상대적인 중립지대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다. 이럴 경우 전통적인 지역 패권을 가진 이란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었다. 물론 이라크전쟁은 이란의 희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미국에게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기회였다.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이었고 안보리 결의를 위해서는 중국이 이라크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중동의 긴장상황을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었다.

물론 1991년 당시 중국의 주요 목표는 천안문사태 이후로 악화된 서구 사회와의 관계 회복이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미국은 먼저 중국에게 회담을 요구했고 안보리 결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존 가버 2012, 178). 미국의 조급한 행동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란이 가진 레버리지의 기능적 효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항상 이란을 포기(희생)하겠지만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항상 이란을 포용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중국과 이란 관계의 전략요소들은 중국이 중동지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이란과 핵프로그램 및 대규모 군사협력을 과감히 진행하는 등 양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유엔에서 보여준 대응은 이란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또한 이란은 유엔 상임이사국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인식할 수 있었고 중국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991년 걸프전쟁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전쟁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미국의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실력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미국의 실력 행사는 중국에게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반서구정책이 아닌 천안문 사태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3. 중국의 외교전략에서 이란카드의 중요성

중국의 이란정책은 일반적으로 중동에 대해 일반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중심적인 이익이 아닌 외교협상의 레버리지의 역할을 하는 주변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97년 중국은 이란과의 핵프로그램 협력을 중단하는데, 그 주된 원인은 미국과의 관계가 우려할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995년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와 대만문제에서<sup>5)</sup> 중국에게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물론 중국은 내정간섭문제, 특히 소수민족문제와 대만의 독립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양보는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야 말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외교 사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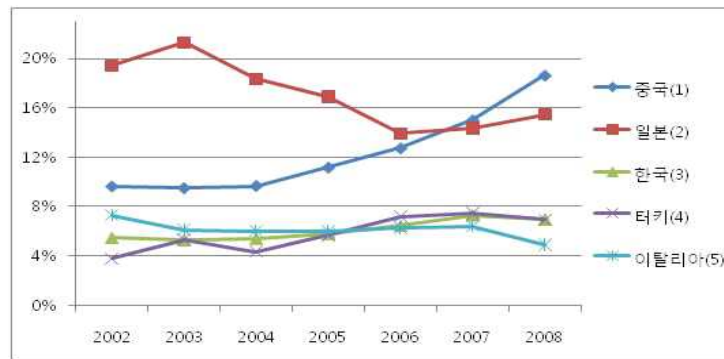
5) 1996년 중국은 대만해협에 미사일 훈련을 강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고 미국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촉발하였다.

결국 중국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고 양보할 수 있는 외교 분야에서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손쉬운 대상은 이란과 같이 미국의 주요 전략대상이었다. 중국은 핵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것으로 미국과 타협점을 찾으려 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수용할 수 없었지만 비핵화 원칙과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악화된 이란과의 관계를 현재는 중국의 주요 외교 수단이 된 경제협력을 통해 보완하였다. 2000년에 중국의 이란 원유수입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다(존 가버 2012, 200). 중국은 이란 원유수입 비중을 기존에 이란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던 것을 적자상태가 되도록 조절하였고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국제사회의 무역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란에 대해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물물교환 형식으로 무역을 유지했다. 2008년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200억 달러 규모에 18.6%를 차지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그림 1> 이란의 5대 수출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9)

중동문제에서도 이란은 미국의 오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이란의 핵문제는 비단 이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중동전략은 물론 동아시아의 북한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까지 줄 수 있어 매우 복잡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미국은 이란과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타협하면서 미국의 중동 영향력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강화했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동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는 미국의 배타적 패권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이란과의 오랜 협력관계를 통해 핵문제 해결 이후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중동에서의 입지를 제고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 IV.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된 이후 중국-이란 전략적 관계 변화

### 1. 중국과 이란의 군사적 협력 배경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국제사회가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있는 정세 변화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규모로 볼 때 오히려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국가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은 아니다.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국제사회가 곧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1978년 중국의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는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크지 않고 협력과 공존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시각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만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방비 지출은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적인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군부(인민해방군)에 대해서도 정부지출 부담을 줄이고 자력사업을 통해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지역 군부대가 경영하는 호텔이 있을 정도로 국방과 관련 없는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일정기간 유지된 중국의 특수한 상황은 중국 군부가 수익사업을 위해 군수물자 수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2년 중국은 북한과 함께 이란 무기 공급의 40%를 담당했고 1987년에는 70% 수준으로 확대되었다(존 가버 2012, 125). 1991년에는 중국이 수단에 무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에서 1994년까지 중국은 이란에 매년 2억 달러 규모의 군수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6)</sup>

중국의 무기판매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그 성능보다는 지정학적 요소에 따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성격이 컸다. 물론 이란과 파키스탄 등이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특히 중국의 군부는 군수품 무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물품에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야는 핵무기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이란과의 군사적 협력은 이란으로서는 반헤게모니 연합의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미국의 제3국에 대한 월등한 통제력을 완화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다. 특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강압적인 ‘민주주의 이식하기’는 중국에게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은 내심 이라크에서의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식된 민주주의는 물론 성공 가능성이 낮다. 중국으로서는 냉전 이후 거대한 힘의 공백을 미국이 다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일정부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sup>7)</sup> 부상하는 중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보다 전략적으로 중동에서 중국의 교두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란은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여 이란을 등진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지만 강경한 반서구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중국 또한 이러한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려는 입장에 있다.

6)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7) 하나의 초강대국 미국과 다수의 강대국에 의한 국제체계를 의미하는 일초다강(一超多强)의 정세인식은 현 정세에 대한 중국의 해석이기도 하지만 희망이기도 하다.

이란은 1980년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할 당시 주로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국산 군수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엄청난 고통을 의미했다. 이란은 군수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이란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반서구, 반제국주의 투쟁을 하고 있는 이란에게 변덕스러운 중국은 대의를 잃은 변절자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란 또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이 이란의 최대 무기 공급자는 아니었다. 특히 1992년 이후 러시아는 매우 공격적으로 군사기술과 무기를 판매하였고 이란은 주요 구매자로 떠올랐다.

중국은 유인우주선을 성공시키며 항공우주분야의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가 양분하였던 첨단무기 분야에 새로운 경쟁자인 중국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미 미국, 러시아, 유럽의 3강 구도가 확대되고 있는 국제 무기시장에서 중국의 참여는 기존 시장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무기시장의 특성상 정치외교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는데, 중국은 기존 판매자들과 매우 다른 정치외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중국과 이란의 군사협력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소련 등 군사적으로 매우 우수한 협력자가 있었다. 중동지역의 중심 국가로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 했던 이란은 호메이니 혁명 이전의 샤 통치시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았고, 혁명 이후 이라크와 전쟁시기에는 중국,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소련과 군사협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냉전이 와해되면서 러시아는 군사기술을 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하였다.

## 2. 중국-이란 군사기술 협력

중국이 이란 군사력에 기여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핵기술과 해전(海戰)능력에 있다. 주로 실크웜 미사일(HY-2)로 알려진 대항순항미

사일을 이란에 공급한 것인데,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 중에 호르무즈해협  
의 통제권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이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이란  
은 중국의 고속정과 대함미사일 등의 구매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기뢰와  
같은 전략적인 무기를 주로 중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존 가버 2012,  
302).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핵기술과 같이 다른 나라에서 얻기 힘든 기술  
을 제외하면 주로 기술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소모적인 재래식 무기를 중  
국에서 공급받았다.

중국으로서는 비단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무기와 기술을 교류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은 무리하게 주변국을 긴장시키는 것  
을 자재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의 분쟁을 회피하려 한다. 무기와 군사기술  
의 국제거래는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부분이고 중국이 이를 감  
수하면서까지 군사교류를 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보다 더 큰 이  
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에게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우 중요한 안보문제로 인식되고 있  
다. 중국의 경제는 흔히 '자전거 경제'로 일컬어지고 있다. 즉, 일정한 속  
도 이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자전거처럼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성장을 유지할수록 작은 경제적 불안정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은 11기 3중전회를 통해 명확하게 석유에 대한 전략  
적 가치를 인정하고 중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목적으로 확인하였다(박기철  
2010, 226).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산유국에 대해서 의도적인 부등가교환  
을 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90년대 이후로 중국의 대이란 군사기술 수출은 주로 미사일분야에 집중  
되고 있다. 중국이 제3세계 국가들이 일정수준의 반격능력을 가지는 것은  
합당한 권리라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을 생각하면 중국 스스로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란에 제공된 샤후브-3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자 중국은  
완전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존 가버 2012, 320).  
상당 부분 밝혀진 사실에 대해 중국 정부가 부인하는 것에는 외교적 목적  
이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이란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군사기술을 제공

하며 이란과의 전략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정사실을 부인하면서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수준으로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

### 1) 중국과 이란의 상호 보완적 군사협력

중국과 이란의 군사협력에서 중국이 이란에게 기술을 전수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이란의 군사협력에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필요한 군사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샤 통치시기 이란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었는데, 미국은 이란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친미적인 이슬람 국가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급유 기술을 전수받았는데, 이는 샤 통치시기 미국이 이란에 전달한 기술이었다.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진 남사군도<sup>8)</sup>의 영유권을 놓고 분쟁상황에 있었던 중국은 공중급유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sup>9)</sup>

또한 1991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가 미군을 피해 이란으로 옮긴 미그-29 전투기 115대를 중국에 판매했다(존 가버 2012, 293). 중국은 이 미그기들을 바탕으로 쟈-7(J-7)을 생산하였고 약 40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시아경제』 2013/11/27).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 안정적인 무기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강력한 반서구정책을 이어나가면서 중국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중국은 이란을 통해 중국에게 필요한 군사기술을 얻을 수 있었고 이란은 중국 무기를 현금 혹은 현물로 즉시 결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 구매자였다. 이러한 상호이익은 오랜 기간 중국과 이란이 군사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이후 이란은 기술력이 높으면서도 저렴한 러시아 무기를 도입할 수 있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로 서구세계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되면서 강력한 반서구정책을 이어가는 이란과의 군사적 협력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1994년

8) 남중국해 남부지역에 있는 군도로 동남아 연안국들과 영토분쟁 상황에 있는 중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9) 중국은 현재 공중급유기를 10대 보유(일본은 4대 보유)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란에 핵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중국은 이란과의 군사협력이 중국의 서구세계와의 관계 회복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야 했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정세 변화에 따라 이란과의 군사협력관계에 변화를 준다면 오랜 기간 힘겹게 쌓아온 이란과의 신뢰관계를 잃을 수 있었다. 따라서 1990년 이후 중국의 대이란 무기수출은 러시아의 수출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다른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갔다.

화학무기는 핵 확산 억제와 함께 국제사회가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며 죄악시하는 분야이다. 중국은 오랜 기간 이란과 화학무기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다. 1993년 7월 미국은 중국의 다롄(大連)항에서 출발해 이란으로 향하는 인허(銀河)호에 화학무기로 사용되는 머스터드가스 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CIA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인도양에서 이 배를 사찰하겠다고 요구했고 중국은 즉각 항의했다. 결국 중국과 미국은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를 검사하는 것에 합의했는데 문제의 화학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프랑수아 랑글레 2012, 84).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독단이라고 맹비난했지만 미국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1997년 5월 미국 정부는 실제로 이란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7곳과 홍콩 기업 1곳에 제재를 가했다(『蘋果日報』 1997/09/15). 중국과 이란의 화학무기 관련 협력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중국과 이란은 서로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이란 핵 프로그램

중국은 1985년 이란의 핵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란 이라크전쟁이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결정은 이란이 중국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였다. 초기 이란의 이스파한핵연구센터(NTRC)는 중국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중국의 중앙정부는 이란-이라크전쟁 기간 동안 교전국에 직접적인 무기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

한했다. 하지만 요르단, 시리아, 북한 등을 경유한 간접판매는 교전상황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외교부의 허가와 덩샤오핑의 승인을 거쳐야 했다(Lu Ning 2000, 122). 이는 반대로 교전상황이 아니라면 비교적 제한 없이 무기수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 군부는 군수물자 수출을 주요한 수익사업으로 인식했다. 또한 당시 중국의 중앙정부는 모든 기관에 적극적인 국제교류와 이를 통한 외화수입을 장려하고 있었다.

중국의 군부는 국제사회에서 핵기술 거래가 가지는 민감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이란과 파키스탄에 핵관련 기술을 거래했고 이러한 군부의 거래는 일부분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군부의 독자행동은 중국의 외교에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다.<sup>10)</sup> 결국 1996년 대만해협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중국 군부의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중앙정부는 국방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이란의 군사협력, 특히 핵분야의 교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힘들어졌다. 중국과 이란의 군수물자와 핵기술 거래 중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인지하는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화하기는 힘들지만 중국 군부의 재량권이 자유로웠을 때에 비해 중국과 이란의 군사교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표 3> 중국의 군사교류 현황

군사교류 횟수					
연도	이란	파키스탄	연도	이란	파키스탄
1990	2	4	1996	1	5
1991	2	3	1997	0	11
1992	3	6	1998	1	5
1993	3	5	1999	0	6
1994	0	9	2000	0	7
1995	0	10	2001	0	4

\* 중국외교개관(1991-1995)과 중국외교(1996-2001)를 기초하여 필자 작성

10) 미국은 파키스탄에 중국이 핵기술을 제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중국과 이란의 군사교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매우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파키스탄과의 군사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다.

인도와 국경분쟁 상황에 있었던 중국은 파키스탄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객관적 이유가 있었지만 이란과의 군사적 교류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핵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고 중국 또한 합법적인 핵 보유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핵기술의 제한적 운용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사실 1980년대 이란의 핵기술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주로 프랑스)의 기술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범위 내에서 이란과의 핵기술 거래를 유지했다.

하지만 1997년 미국은 중국이 육불화우라늄<sup>11)</sup>공장을 이란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어조로 항의했다. 이란은 일년 전 이미 IAEA 안전조치국에 중국으로부터 육불화우라늄공장을 수입할 예정임을 통보했었다(존가버 2012, 256). 중국은 장비를 공급하기 직전 이란과의 계약을 취소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은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이란은 중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육불화우라늄공장을 독자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었다.

이란의 핵개발 문제가 부각된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은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001년 911사태 이후 이란은 북한과 더불어 ‘악의 축’으로 지목되었고 이들 두 국가는 모두 핵개발에 따른 강화된 국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이란의 평화적인 핵프로그램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2009년 11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농축우라늄공장건설을 비난하는 결의를 지지했다. 물론 곧바로 이란으로부터 유감표명이 있었다(楊興禮 2010, 64).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이란에 핵기술을 전수했다는 원죄에 대한 면죄를 받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란의 차분한 대응에서도 보여지듯이 2000년이 지난 시점부터 핵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이란과 중국

11) 농축우라늄 원료로 농축우라늄은 핵무기로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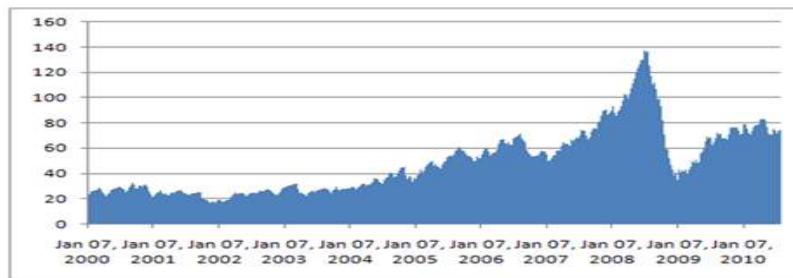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3. 중국-이란 향후 발전 방향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국제사회를 주목시키고 있다. 911사태 이후로 미국의 패권 영향력이 약화되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아진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역사적 패권국의 부상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냉전체제에서 중국의 중동전략은 외교적으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고밖에 볼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대국으로 거듭난 중국은 중동의 석유와 그 석유를 안전하게 중국 본토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급등한 국제유가는 2008년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촉발된 경제위기에 따라 차츰 하락하여 현재는 수급상의 우려가 높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서구세계가 장악하고 있는 국제 석유거래체제에서 독자적인 수급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미국의 패권체제에 ‘동조’하기보다는 미국의 패권과 ‘공존’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기존 중국의 지도부(장쩌민, 후진타오)가 미국 방문 시 재차 강조했던 중국의 미국의 패권 존중과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없다는 태도표명과 분명 다른 시각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국제유가추이 2000-2010 (단위: USD)



\* EIA Statistics(2011)

911사태 이후 네오콘의 주도로 강경한 국제전략을 펼치던 미국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계기로 국제전략의 전반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로 안정적인 국제체제 유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문제가 해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중동의 안정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미래의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이란의 핵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한 미국은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재확인되어 미국 패권에 대한 의문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중동지역의 안정화는 억압된 이란의 지역 내 영향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아파 무슬림 국가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은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중동지역에서 시아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을 매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수니파가 전체 이슬람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아파는 지리적으로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로 연결되어 지중해와 아라비아해를 가로지르는 통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소수는 더욱 응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이란이 중동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세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투자와 무역을 통한 중국과 중동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의 기존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면 중국의 국가적 목표인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중동지역에서 나타난 가장 큰 정치외교적 변화가 될 것이다.

## V. 결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국가로서 종교에 대한 개방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부지역 소수민족 중 종교적 연대를 기반으로 독립을 요

구하는 티벳과 신강지역 등은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해 보다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로 나타난 종교적 갈등양상에서 중국은 오히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특히 수세에 있는 중동 이슬람국가들은 기독교 중심의 유럽과 미국이 아니면서 빠르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중동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교류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오랜 반서구정책에 따라 고립이 심화된 이란 또한 중국이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세계 문명의 양대 산맥이라는 상호 존중과 근대 역사에서 서구열강에 유린당했던 감정적 공감대는 초기 중국과 이란 관계에서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이미 G2 수준으로 성장한 중국의 국가이익은 여전히 반서구정책 노선을 유지하는 이란과 크게 달라지고 있다.

2013년 11월 타결된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은 극적으로 변화하는 이란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게 미국과 이란의 관계 개선은 미중관계에서 중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레버리지의 약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개방된 이란과 합법적으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잠재된 중국과 이란의 공동이익 확대는 2013년 11월 이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중동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다.

중국이 중동지역에서 이란을 통해 성공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란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이 궁극적으로 중동지역에서 중심적인 세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사실 이란이 가진 역사와 종교적 지위 그리고 국가규모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미국의 영향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중동전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곧 지금까지 중동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오일달러(Oil Dollar)에 의해 자체적인 실력이 강화된 중동의 산유국들은 이전과 달리 매우 자신감에 차 있다. 두바이 건설과 같은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

다. 처음 미국이 산유국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도했던 OPEC은 미국의 간섭에서보다 독립적으로 산유국들의 이익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이란은 전통적인 중동의 강국으로서 향후 지역 내에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란과 구축한 외교적 자본은 오랜 기간 사회주의국가로 자본주의세계와 단절되어 있던 중국으로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핵기술과 같이 민감한 분야까지 교류를 진행한 경험은 중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이란은 미국과의 외교에서 중요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란의 위치는 중국이 필요에 따라 이란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향후 국제체제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위해 이란을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 김송죽·최유나 (2014). “부시정부 시기 석유자원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미치는 영향.” 『아태연구』, 제21권, 제3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지역경제포커스』, Vol. 3, No. 54.
- 박기철 (2010). “후진타오체제하의 중국 석유외교정책의 실제와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중국학연구회, 제51집.
- 이규태·구광범 (2011).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변화와 정책적 함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재승 (2011). “금융위기 이후의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 『EAI NSP Report』, 48. 동아시아연구원.
- 최영철 (2013). “걸프지역 석유자원과 제2차 걸프전쟁(1990-1991).” 『중동연구』, 제32권, 2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4). “미국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시사점.” 『VIP 리포트』, 14-29호.
- 존 가버 (2012). 『중국과 이란』, 박민희 역, 알마.
- 프랑수아 랑글레 (2012). 『제국의 전쟁: 중국 vs 미국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세진 역, 소와당.
- Lu Ning (2000). *The Dynamics of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West view Press.
- 楊興禮 (2010). “中國的伊朗研究六十年.” 『西亞非洲』, 4期.
- 박희준. “中 ‘최강전투기’ 500대 뜨면 ‘F-15’ 바로.” 『아시아경제』, 2013년 11월 27일.
- “China: paper cites CIA report on weapons to Iran.” 『蘋果日報』, 1997年 9月 15日.

| 논문투고일 : 2015년 05월 10일 |

| 논문심사일 : 2015년 06월 06일 |

| 게재확정일 : 2015년 06월 17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2, No. 2 (2015)

**A Study on Sino-Irani relationship and its  
development in the circumstance of China's  
rising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area**

**Shin, Kyungwhan**

(Dept. of Global Trade & Management, Shinhan Univ.)

The rise of Chinese power will change shape of current international structure. However, most people do not agree traditional concept that one rising power must bring the end of current balance of power. In today's world we are more interested in the shape of new international structure that included powerful China. Middle East would be best place that show us new shape of international structure. China as a huge trade nation demand constant supply of oil and resource. Thus, China is tactically approach Middle East and it will make some dispute between China and US. This study will analysis China's policy toward Middle East by analysing China's strategy toward Iran which is one of the biggest hostile nation against US in the region.

- Key words: China's Middle East Policy, US Hegemony, Oil Policy, Rise of China, Sino-Iran Relation